



**4 개의 챕터를 통해 무한함을 펼쳐 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

그랑 메종은 상징적인 컬렉션을 빛내 줄 가장 정교한 위치를 출시하며, 아이콘 모델인 리베르소에 찬사를 보냅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는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노하우와 새롭고 혁신적인 천문학적 인디케이터를 결합하여 6년 이상의 개발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4개의 기능을 갖춘 디스플레이 페이스가 장착된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입니다. 히브리시 메카니카 콰드립티크는 아이코닉 리베르소 크래들의 내부 페이스에 3개의 달 정보 디스플레이(삭망 주기, 교점 주기, 근점 주기)를 통합함으로써, 슈퍼문 및 일식과 같은 천문학적 현상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하는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입니다.

---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콰드립티크)의 핵심 사항**

- 4개의 페이스를 지닌 세계 최초의 위치이자, 리베르소 역사상 가장 정교한 모델
  - 퍼페추얼 캘린더와 미닛 리피터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손목시계에 제공된 적이 없었던) 삭망 주기, 교점 주기, 근점 주기 인디케이터를 포함한 총 11개 컴플리케이션, 12개의 특허 등록
  - 예거 르쿨트르의 차임 시계, 정밀 메커니즘,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 초소형 위치메이킹의 뛰어난 노하우를 결합한 제품
  -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및 구조, 가장 정밀한 리베르소 모델이자 가장 착용하기 쉬운 제품 중 하나
-



2021년 4월 7일, 제네바 — 예거 르쿨트르는 188년의 끊임없는 혁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밀 기계식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매우 정밀하고 획기적인 히브리스 메카니카 시리즈는 시계의 하늘에서 더없이 독보적인 광채를 발산하는 별자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이 천체 컬렉션에 최근 합류한 모델은 6년의 제작 과정을 거친 걸작인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185 콰드립티크로, 4개의 시간 표시 페이스를 갖춘 세계 최초의 시계입니다.

개인용 타임피스 출현 이후, 점점 더 정교한 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워치메이커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에 따라 제한을 받았습니다. 시계에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있다 해도, 뛰어난 가독성과 명료한 디스플레이, 적절한 착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코닉 리베르소의 독특한 디자인에서 벗어난 예거 르쿨트르는 인하우스 칼리버 185로 구동되는 양면 케이스와 예거 르쿨트르 고유의 독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매일 자정에 기본 무브먼트로 동기화 및 업데이트되는 인디케이터가 장착된 양면 크래들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185 콰드립티크의 11개 컴플리케이션이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되었다면, 손목보다 책상에 더 적합한 타임피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약 2세기에 걸친 전문성과 혁신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는 51mm x 31mm x 15mm 사이즈의 케이스로 우주와 지상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개의 챕터를 통해 워치메이킹의 빼어난 기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챕터 1: 우주의 탄생

예거 르쿨트르의 유구한 역사는 정확성 추구와 달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립자 앙트완 르쿨트르로의 최초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100만분의 1미터 길이인 미크론(micron)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장비인 밀리오노미터였습니다. 오늘날 예거 르쿨트르는 시계의 크로노미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인 투르비옹의 뛰어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 모두가 인정하는



선구자이자 리더입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자이로투르비용 2(2008 년)은 대중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며 다축 회전 밸런스로 크로노메트리상을 받았고,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트립티크(2006 년)는 고정밀 타원형 아이소미터 이스케이프먼트가 장착된 투르비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투르비용은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과드립티크)의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케이스 앞면의 7 시 위치에 자리한 플라잉 투르비용(상단 브릿지가 없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은 1 분에 한번 회전하며 밸런스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단일 조정된 평균 시간을 측정합니다.

밸런스는 모든 시계 무브먼트의 중심이며, 시간 측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4Hz(28,800vph)의 규칙적인 리듬으로 박동하기 때문에 8 비트마다 1 초가 지나갑니다. 초는 분과 시간, 하루, 주, 달, 연 단위로 누적됩니다. 기계식 시계의 최고 기능을 보여주는 과드립티크 케이스의 앞면은 매월 불규칙한 일수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확한 날짜를 표시하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메커니즘인 퍼페추얼 캘린더를 표시합니다. 또한, 윤년을 고려하여 4 년마다 2 월 29 일을 표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85 의 구조적 정확성을 강조하는 퍼페추얼 캘린더 인디케이터는 자정에 맞춰 즉각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칼리버 185 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다이얼의 5 시 위치에 날짜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에서는 대형 날짜의 완벽한 가독성만이 뛰어난 명성을 지닌 시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7 시 방향에 플라잉 투르비용을 장착하기 위해 새로운 날짜 표시 디스크 시스템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과드립티크)의 첫 챕터는 그랑 메종이 어떻게 표준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챕터 2: 천상의 소리**

소네리 손목시계에 있어서 자체 제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메이킹 매뉴팩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1870 년 이후로 소네리 손목시계 제작은 줄어드는 추세에다 150 년간 경험과 최고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위치메이킹 매뉴팩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이고 모던한 상티에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 그랑 메종에는 200 개가 넘는 차임 시계 칼리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치메이킹 매뉴팩처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콰드립티크 케이스의 뒷면은 예거 르쿨트르가 차임 시계의 장인이자 혁신가로서의 유산을 보여주는 역작입니다.

크라운 바로 위에 위치한 레버 슬라이드로 콰드립티크의 영롱한 멜로디가 퍼져나옵니다. 첫째, 낮은 음들은 시간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려주고 둘째, 고음과 저음이 번갈아 들려오며 15 분을 나타냅니다. 멜로디를 마치는 고음이 연속적으로 들리며 경과된 15 분에 추가할 분을 나타냅니다. 협화음에서 시-15 분-분의 차임은 음악 코드로 현재 시간을 연주합니다. 리베르소 콰드립티크의 놀라운 업적은 뒷면 다이얼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지만, 점핑 아워 및 퍼리퍼럴 미닛 형식으로 표시되는 세컨드 타임 디스플레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콰드립티크가 시간을 알리면 스프링, 캠, 해머, 공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세컨드 다이얼의 비주얼 디스플레이로 이어집니다.

클루 드 파리로 알려진 기묘세 모티프를 수공 장식한 무브먼트 플레이트의 표시창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의 소네리 노하우와 특별하게 연결된 차임 메커니즘 요소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형 앵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1895 년에 매뉴팩처에서 특허를 받은 무음 차임 거버너가 포함됩니다. 콰드립티크에서 최근 선보인 혁신 기술은 소재의 최상의 음향을 활용하기 위해 리피터 공을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직접 부착하는 크리스탈 공(2005 년 마스터 미닛 리피터 앙트완 르쿨트르에서 처음 등장)과 해머와 공 사이의 접촉과 에너지 전달을 극대화하는 공 자체의 정사각형 단면(2006 년부터 예거 르쿨트르 리피터 위치의 핵심), 공에 깔끔하고 강한 타격을 전달하는 트레뷰셰 해머(2009 년 히브리스 메카니카 듀오미터 그랑 소네리용으로 개발)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 미닛 리피터는 오늘날 가장 크고 선명한 소리를 들려주는 차임 손목시계로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185 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은 시와 15 분, 분 사이에 끊김 없이 매끄러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차임 구성 요소의 완전히 새로운 엔지니어링입니다. 기존의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은 일련의 캠에서 시간을 읽은 다음, 각 멜로디 음을 차례로 활성화하는 특수 피벗 랙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멜로디 사이에 무음 구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15 분이 없는 시와 분 사이를 타종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히브리스 메카니카 마스터 울트라 썬 미닛 리피터 플라잉 투르비옹(2014 년)과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자이로투르비옹 웨스트민스터 퍼페추얼(2019 년)은 이러한 무음 구간을 줄임으로써 차임 노하우의 탁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리베르소 콰드립티크에서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콰드립티크는 기계적 시퀀스에서 특정 단계를 개선하고 순서를 바꿈으로써 이러한 구간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185 의 차임은 끊김 없이 유려하게 이어지는 탁월한 음향을 통해 정점에 이른 혁신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 챕터 3: 궤도 찾기

시간 계산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개발되기 전, 원시 사회는 천체 현상을 관찰하고 하늘 위 움직임에 대한 매혹적인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초의 천문학자들은 수학자이기도 했으며, 이들의 공식에 따라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천체의 위치를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 지구, 달의 여러 궤도 사이의 상호 작용은 삶의 리듬을 결정하며, 위치메이킹은 처음으로 우리 주변의 세계에 질서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약 2 세기에 걸쳐 파인 위치메이킹 전문성을 갖춘 시계 매뉴팩처인 예거 르쿨트르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시간 표현의 모든 측면을 마스터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대표적인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그랑 컴플리케이션(2010 년)에서 처음 선보인, 태양 대신 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항성시 인디케이터입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기계식 시계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손목시계에 3 개의 달 정보 디스플레이(삭망 주기, 교점 주기, 근점 주기)를 통합했습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185 의 크래들 내부 페이스에 위치한 이 독특한 미시역학 인디케이터의 조합을 통해, 일식과 월식 및 슈퍼문과 같은 희귀한 달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 콰드립티크 크래들 내부 페이스의 상단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거대한 북반구의 문페이스입니다. 레이저로 인그레이빙된 달은 삭망 주기의 달의 나이에 해당하는 골드 글리터 장식의 움직이는 블루 래커 디스크에 의해 점점 모습을 드러내거나 감춥니다. 기존의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는 32.5 개월 후 하루 동안 오류가 발생하지만 콰드립티크의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는 1,111 년 후 단 한 번만 조정하면 됩니다.

문페이스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 왼쪽에는 작은 반구형 달이 궤도를 돌고 있는, 미세한 입체 조각의 핑크 골드 태양이 장식된 카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터는 달의 경로가 태양 주위의 지구 궤도(황도라고도 함)와 교차할 때의 교점 주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차점은 각 회전 주기에서 두 번 발생하는데, 이는 달과 태양의 카운터에서 수평 정렬로 표시됩니다. 이때 달과 지구, 태양 모두 같은 평면에 있지만, 정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렬되려면 삭망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추가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 주기 동안 황도면을 기준으로 달이 위로 떠오를 때 달이 상승하여 월식이 발생하며, 반대로 달이 질 때는 하강한다고 하며 이때 일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식 현상의 실제 가시성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지리적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점 주기 카운터의 오른쪽에는 에나멜로 마이크로 페인팅한 지구를 돔으로 표현했고, 그 주위를 편심 궤도로 도는 반구형 달이 장식되었습니다. 이 카운터는 지구와 달 사이의 다양한 거리를 보여주는 근점 주기를 나타냅니다. 원지점은 달과 지구 사이의 가장 먼 거리이며 근지점은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합니다. 달이 근지점 근처 또는 근지점에 완전한 위상으로 있을 때, 달이 평상시보다 최대 14% 더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이 발생합니다.

손목시계에서 삭망 주기와 교점 주기, 근점 주기를 함께 표시하는 것은 워치메이킹 역사상 처음으로, 교점 및 근점 주기 인디케이터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 는 천문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유일한 시계입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히브리시 메카니카 라인은 2003 년 애틀모스 미스터리 클락을 시작으로 마스터 히브리시 메카니카 자이로투르비옹 1(2004 년),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그랑 컴플리케이션 트립티크(2006 년), 마스터 울트라 썬 미닛 리피터 플라잉 투르비옹(2014 년),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자이로투르비옹 웨스트민스터 퍼페추얼(2019년)을 포함한 20여 개의 획기적인 모델들을 선보이며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스(Hybris)라는 단어는 고대 전설적인 영웅들의 치솟는 야망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hubris"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워치메이킹의 지평을 지속해서 확장하겠다는 예거 르쿨트르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18년 동안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 챕터 4: 우주의 뒷면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는 폴로 경기 중 발굽과 타구봉의 우아한 쟁탈전 속에서 섬세한 시계 메커니즘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1931년에 탄생했습니다. 90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콰드립티크에는 훨씬 더 오래된 원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당당한 승마 스포츠만큼 정확하고 구조화된 규칙에 따라 캘린더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오리지널 리베르소는 시간을 알려주는 하나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으며, 크래들 안에서 움직이는 케이스를 뒤집어 견고한 케이스백을 드러냈습니다. 차세대 리베르소는 착용자의 미적 선호도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거나(듀에토) 여행 시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세컨드 타임존을 표시하는(듀오페이스) 등 케이스백에 또 다른 다이얼을 장착했습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트립티크(2006년)는 리베르소 크래들 내부 페이스에 세 번째 디스플레이를 배치하여 시계 혁신의 진화적 도약을 나타냅니다.

올해, 세계 최초로 4개의 페이스를 지닌 손목시계인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185(콰드립티크)가 출시되어 리베르소 콘셉트의 정수를 담아냈습니다. 콰드립티크의 마지막 얼굴인 크래들의 외부 페이스에는 남반구의 문페이스가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문페이스 인디케이터는 북반구 관점이지만, 콰드립티크는 네 번째 페이스에 남반구의 문페이스를 표시함으로써 리베르소의 듀얼 콘셉트를 계승했습니다. 블루 그라데이션 래커 처리와 인그레이빙이 더해진 별 모양의 스카이 차트는 핑크 골드 달의 배경이 되어주며, 이러한 디테일들은 모두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아뜰리에에서 완성됩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콰드립티크의 네 가지 기능을 갖춘 디스플레이 페이스의 비밀은 2006 년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그랑 컴플리케이션 트립티크에서 처음 사용된 솔루션에 있습니다. 매일 자정이 되면, 핀이 메인 케이스 무브먼트 밖으로 확장되어 크래들의 기계식 조정 장치를 활성화한 다음 크래들 디스플레이를 표시합니다. 크래들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메커니즘은 시계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추가 무브먼트 플레이트 없이 크래들에 직접 세팅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초소형 위치메이킹 기술력을 통해, 다양한 인디케이션과 컴플리케이션이 장착된 콰드립티크를 현 시대에 가장 착용하기 쉬운 하이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제작했습니다.

### **무한함을 담은 박스**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 는 제품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계의 모든 캘린더와 천문학적 인디케이터를 빠르고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내장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 박스에 제공됩니다.

박스 측면에 위치한 2 단계의 크라운은 시계를 마지막으로 착용한 이후 경과된 일수를 먼저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레임 내에 콰드립티크를 세팅하면, 박스의 조정 크라운이 두 번째 포지션으로 확장되고, 와인딩을 통해 모든 캘린더와 천문학적 인디케이터를 현재 날짜로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박스 내 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시계를 과도하게 조정하거나 무브먼트를 손상할 위험이 없습니다.

히브리시 메카니카 신제품의 연구 개발에는 6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그랑 메종의 워크숍에 축적된 188 년의 혁신과 전문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 콰드립티크를 통해, 예거 르쿨트르는 기계식 위치메이킹의 정점에 다시 올랐으며, 시계 제작 전문성의 한계를 확장하기 위한 헌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 기술 사양

###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185

케이스 소재: 화이트 골드

케이스 크기: 51.2 x 31 mm

두께: 15.15 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85

기능:

페이스 1: 시- 분, 투르비옹(초 표시), 즉각적인 퍼페추얼 캘린더, 대형 날짜, 일, 월, 윤년, 낮/밤

페이스 2: 점핑 디지털 아워, 분, 미닛 리피터(무음 구간 방지 시스템)

페이스 3: 북반구의 문페이즈, 달의 교점 주기(달의 높이), 달의 근점 주기(근지점, 원지점), 월, 년

페이스 4: 남반구의 문 페이즈

파워 리저브: 50 시간

방수: 30m

스트랩: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7103420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

##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